

일본 FRP 수요 다소 회복세

건설 · 육조용 소폭 증가 ... 정화조 · 탱크가 수요감소 이끌어

일본의 FRP(Fiber Reinforced Plastic)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폭을 줄이면서 호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.

일본 강화플라스틱협회가 발표한 2003년 FRP 출하실적에 따르면, 총 출하량은 33만7400톤으로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전년대비 2% 감소에 불과해 FRP 수요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낙관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.

일본의 FRP 생산현황(2003)

(단위: M/T, %)

구 분	2002		2003	
	생산	증감률	생산	증감률
건설자재	49,800	-2	80,700	2
육조 · 육실	96,200	-3	97,300	1
정화조	55,100	-10	48,100	-13
주정 · 선박	11,300	-8	10,800	-4
자동차	21,200	-5	24,200	14
탱크 · 용기	28,400	-7	26,800	-6
공업기재	38,500	-14	38,200	-1
잡 화	31,400	-4	29,800	-5
기 타	12,600	29	11,500	-9
합 계	344,500	-4	337,400	-2

자료) 일본강화플라스틱협회

그러나 2003년 총 출하실적은 최대 호황기였던 1997년의 70.4%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낙관론은 이르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.

2003년에는 건설자재가 전년대비 2% 증가한 5만700톤에 달했고 육조 및 육실유닛트도 1% 증가했다. 특히, 자동차와 차량부품용은 14% 증가해 전체 마이너스 폭을 줄였다.

그러나 정화조 -13%, 선박 -4%, 탱크 및 용기 -6% 등으로 감소세가 멈추질 않아 전체 FRP 생산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. <이범의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9/03>